

보도일시 (인터넷) 2026. 7. 14.(화) 11:00 (지면) 2026. 7. 15.(수) 조간 배포 2026. 7. 14.(화) 06:00

## 7월 15일 부산에서 '제8회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 개최

- '시대와 공간을 잇는 등대, 빛으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 열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7월 15일(수) 11시 부산에서 '시대와 공간을 잇는 등대, 빛으로 여는 미래'를 주제로 국제항로표지기구(이하 "IALA")가 공식 지정한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IALA(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arine Aids to Navigation), 전 세계 항로표지 표준화를 통한 선박 안전 경제적 항행 지원 등을 위해 1957년 설립된 항로표지 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간 기구

'세계등대의 날(7. 1.)'은 2018년 인천 '세계등대총회'에서 지정되어 2019년부터 매년 IALA 주최로 공식 기념식과 국가별 자체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기념식에는 IALA 사무총장, 주한칠레대사 등 해외 인사와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및 일반 국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항로표지 기반시설의 첨단화, ▲해양관광 자원으로서의 등대 역할 등을 제시하는 한편, 항로표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에게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 등대를 주제로 한 사진·그림 공모전 시상,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하였다.

같은 날 오후에는 포항 등대박물관에서 특별한 점등식이 열린다. 1900년부터 123년간 영국 펜딘등대에서 사용해 온 문화유산급 등대렌즈를 영국 정부로부터 영구 임대받아 전시하는 것으로, 이번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 주제에 걸맞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재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맞아 항로표지가 자율 운항선박, 북극항로 개척 등 새로운 바닷길을 열어가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     |     |                    |
|-------|------------------|-----|-----|--------------------|
| 담당 부서 | 해사안전국<br>항행정보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김형준 (051-773-5870)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영진 (051-773-5871) |

